

Part 1 — 돈의 종말 (Q&A)

1월 4주차 Q&A — 금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가능성 + 단기·장기 금융시장

· 정리 2026-05-14

미국이 금값을 막던 90년이 끝나간다

박종훈의 경제로드맵 두 번째 Q&A 시간. 수강생 두 분의 질문이 향한 곳은 같은 시대 메시지였습니다 — 미국이 금을 화폐의 적으로 취급한 90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인식.

Q1은 금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가능성을 묻습니다. 1933 루즈벨트가 금을 몰수한 그날부터 미국은 금값이 오를 때마다 모든 수단을 써서 찍어 눌렀습니다. 그 도구가 지금 어디까지 남았을까.

Q2는 더 기초적입니다. 정부가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왜 시장에 돈이 마른다고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본강의 part2_01(채권과 금리)의 사전 기초 — 단기·장기 금융시장의 큰 벽이 핵심.

두 질문을 따라가면 금 시장의 시대 흐름과 미국 통화·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분리, 한국이 함께 들여다볼 두 시각이 보입니다.

90년

1933 루즈벨트의 금 몰수부터 시작된 미국-금 전쟁의 시대

미국이 정말 더 이상 금값을 막을 수 없을까? — 도구별 한계를 따져봅니다.

Q1 도입 — 미국은 왜 금값을 가장 싫어할까

수강생 간식먹는 사자님의 질문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 금본위제로 돌아가면 달러 패권을 위협할 텐데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금값 오르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각국 중앙은행 자산 중 금 비중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채를 사주는 큰손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는 직접적입니다 —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력 누적.**

1933년 루즈벨트가 금을 몰수한 그날부터 미국은 금을 화폐의 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그 뒤로 금값이 오르려고 하면 모든 수단을 써서 찍어 눌렀습니다. 이번 회차는 그 90년 전쟁의 도구가 지금 어디까지 남았는지를 짚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시작점 —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12%p 이동을 봅니다. 강의 § 3에서 시작된 사고를 따라가며.

외환보유고의 12%p 이동 — 달러에서 금·기타 통화로

강사가 시작점으로 꺼낸 정량은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비중이 **2019년 70%에서 2025년 58%로 -12%p** 줄었습니다. 줄어든 비중의 행선지는 첫째 금, 둘째 기타 통화 (호주 달러·위안화·원화 등), 셋째 유로화·엔화는 미미.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사는 속도가 더뎠고 있다**는 게 핵심. 미국이 발행량을 빠르게 늘리는데 매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셈입니다. († 1)

다음 카드에서 미국 부채 가속의 시점별 정량을 봅니다.

■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비중 변화 (2019 → 2025)

달러 (USD)		70% → 58%
금 + 기타 통화 (호주·위안·원)		+12%p
유로 + 엔		거의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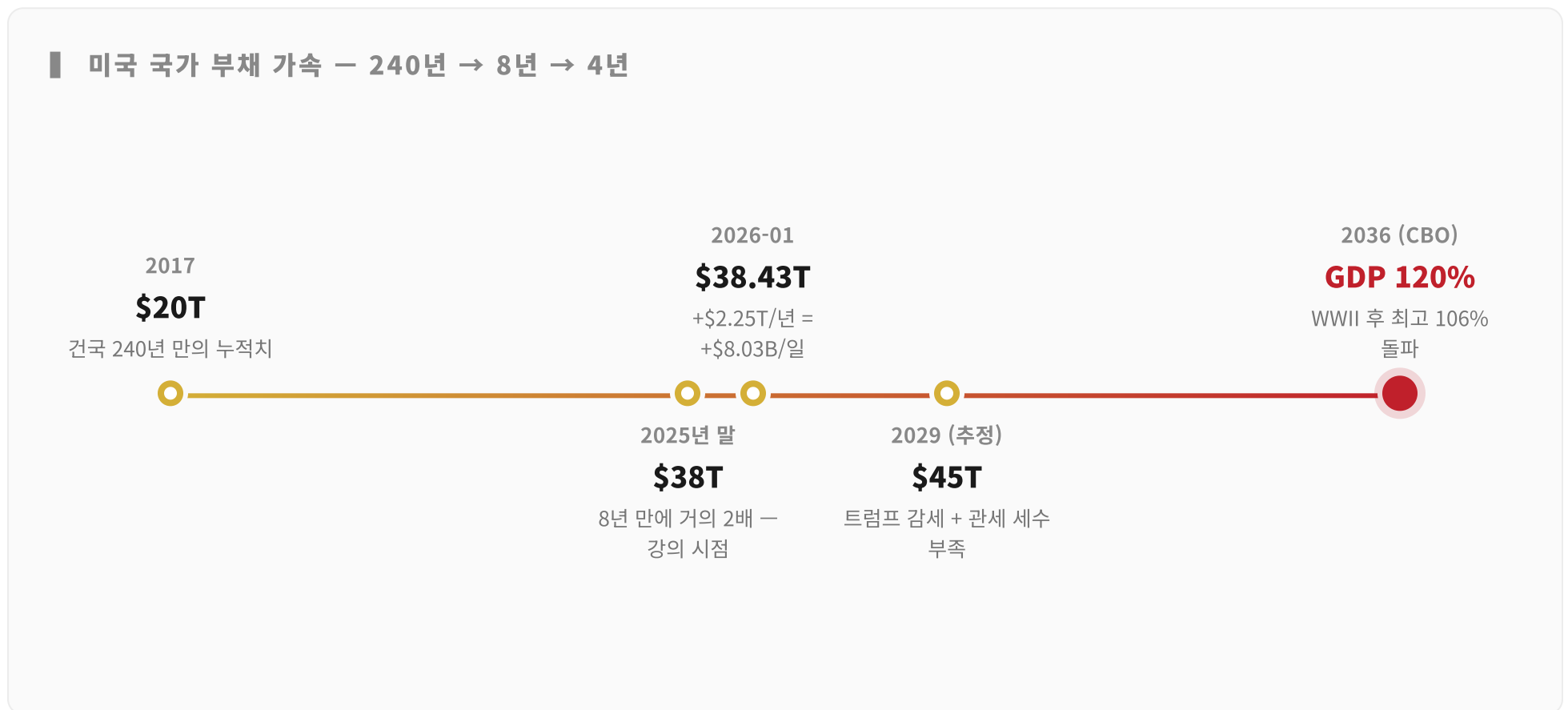
달러 -12%p, 늘어난 자리의 1순위는 금

240년 → 8년 — 미국 부채 가속의 충격

미국 국가 부채는 진짜 빨라도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20조였습니다 — 건국 240년 만에 누적한 양. 그런데 2025년 말 **\$38조**로 단 8년 만에 거의 2배. 2029년 추정은 **\$45조** (트럼프 감세 + 관세 세수 부족).

240년에 걸쳐 쌓은 부채를 단 8년 만에 거의 같은 양만큼 더 쌓는 셈입니다. 회차 시점 이후 흐름은 더 가속됐습니다 — 2026-01 **\$38.43T (+\$2.25T/년)**, 2026-03 \$39T 돌파. CBO 2036 GDP 120% 전망 (WWII 후 최고 106% 돌파). (+3)

이런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매입 속도가 둔화되거나 매각으로 돌아서면 미국에 치명적입니다.



국가별 금 비중 — 한국 3.7%의 비정상

지금 단면을 쪼개봤을 때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60~70%, 러시아 20~30% (급증 중), 인도 13%, 중국 8% (실제 12% 추정), 그리고 **한국 3.7% (장부상 1.2%)**.

한국이 미국에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지만, 강사는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습니다.

(+1)

BRICS+ 6,000톤 (글로벌 17.4%, 2019 11.2% 대비 가파른 상승). 가치 저장 수단이 과거 미국 국채에서 점점 금으로 전환되는 시대 패러다임 —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국가별 외환보유고 금 비중 비교

국가	금 비중	비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	60~70%	미국에 친한 척이지만 달러 신뢰 낮음
러시아	20~30%	미·유럽에 자산 빼앗긴 후 급속 증가
인도	13%	최근 급증 (원래 7%였음)
중국	8% (실제 12% 추정)	몰래 사들이는 중
한국	3.7% (장부 1.2%)	G9 경제 규모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음

1933 루즈벨트 — 금-달러 90년 전쟁의 원년

미국이 금과 90년 전쟁을 시작한 그 원년이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령 6120호**입니다. 미국 내 개인·기업이 보유한 금을 **전부 몰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위반 시 **징역 10년** 그리고 **벌금 1만 달러** (현재 가치 ~3억 원).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 — '또는'이 아닌 '그리고'였습니다. 너 징역도 때려 맞고 벌금도 내는 식.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대통령령이 나오니 미국 사람들은 갖고 있는 금을 전부 연준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금을 화폐의 적으로 취급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강의가 짚는 것은 그 뒤로 미국에서 "금값이 오르려고 하면 진짜 모든 수단을 써서 금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짝어 눌렀다"는 90년의 패턴.

그 패턴의 핵심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 강사는 단순 정책 합의가 아닌 **초대형 은행 + 연준의 공포감 작전**이었다고 밝힙니다. 다음 카드에서 그 작전의 정체를 봅니다. 작전 이름은 의외로 동화에서 따왔습니다 —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 작전 — 종이금 네이키드 공매도

미국이 금값을 막아온 핵심 수단은 **종이금 대량 매도**. 초대형 은행(볼리온 은행)에 **네이키드 공매도** 권한을 줬습니다 — 금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작동 메커니즘은 단순했습니다. 연준이 8천 톤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초대형 은행에 막강한 자금력이 있다는 **공포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금값 상승에 베팅하면 막대한 손실 위험 — 감히 금 매수에 베팅하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강사는 이를 **오즈의 마법사 작전**이라 비유합니다. 도로시가 찾아갔더니 가짜 마법사였던 것처럼, 연준·초대형 은행의 무한 금 공포는 실제로는 허상이었습니다. "우리 무서운 거 알지? 우리에게 덤비면 끝장이야, 우리는 금값이 내려가길 원해" — 이 공포감이 수십 년 동안 먹혀왔습니다.

초대형 은행들은 항상 금이 떨어지는 데 베팅했습니다.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 만약 그렇게 하면 연준에 맞서는 것이고 미국 초대형 은행의 자금력에 맞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감히 누가 연준에 덤비랴" 자기 검열하며 매수 베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카드에서 의외의 반전이 옵니다 — 이 작전이 실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사법 적발의 충격을.

오즈 작전의 실제 사법 적발 — JPMorgan \$920M

오즈의 마법사 작전은 실은 불법적 가격 조작으로 작동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JPMorgan은 [2020년 9월 CFTC 합의](#)로 \$920.2M (사상 최대) 벌금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 — 2008~2016년 8년 동안 뉴욕·런던·홍콩 정밀금속 데스크에서 금·은·백금·팔라듐 선물 spoofing(허위 주문 후 취소) 수만 건. 트레이더 2명이 형사 처벌됐고(Nowak 1년 1일, Smith 2년), 모건스탠리·도이체뱅크·노바스코샤·바클레이즈 포함 **8개 빅 은행가 총 \$1.3B 합의**.

오즈의 마법사 작전이 합법적이지 않았던 셈입니다. 2025년 은값이 \$83+ 마지막 마디까지 폭등하고 shorts 포지션이 붕괴된 것은 — 이 작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선 신호. (+4)

JPMorgan + 빅은행 정밀금속 spoofing 적발

기관	벌금/합의	내용
JPMorgan (2020)	\$920.2M	CFTC 사상 최대 — 2008~2016 spoofing
트레이더 2명 형사	Nowak 1년 1일 / Smith 2년	뉴욕·런던·홍콩 정밀금속 데스크
8 빅은행 합산	\$1.3B	JPM·MS·Deutsche·Nova Scotia·Barclays 등
2025 은값 결말	\$83+ 최고가	shorts 포지션 붕괴 — 작전 종언

1970년대 금값 24배 폭등 — 프랑스가 시작했다

오즈의 마법사 작전이 처음 깨진 게 **1970년대 금값 폭등**입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완만해 보이지만 확대하면 충격적 — 1970년 \$35였던 금값이 1980년 \$612, 한때 \$850까지. **10년 동안 24배 폭등**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1960년대까지 유럽은 미국을 마셜 플랜의 어벤저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심 많은 **프랑스**가 먼저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다. 달러를 가져가도 금으로 안 바꿔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조금씩 금 교환 요구.

독일·네덜란드·벨기에가 따라가서 "프랑스 애들이 자꾸 금으로 바꾸는데 나도 좀 불안한데?" → 너도나도 교환 요구 → 결국 **닉슨이 1971년 금태환 중단 선언**. 미국이 금값을 35달러로 억지로 유지했다면 싼값에 연준 금고가 털렸을 것 —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 평행이지만 — 미국이 더 취약하다

2024년부터 시작된 현재 폭등은 **1970s와 똑 닮아 있습니다**. 2024년 이래 ~2.3배. 옛 24배에 비하면 귀엽지만 수직 상승 속도가 1970s 악몽을 떠올립니다.

다만 이번엔 막는 자가 다릅니다 — 유럽이 아닌 **브릭스+ 및 신흥국·선진국 국부펀드**가 미국에 현물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선물 만기에 실물 인도가 적었던 것은 운송·보관 비용 부담 때문 (무장 운송 차량, 비행기, 은행 금고 신축).

이제 "**종이금으로 사기 치지 마. 금과 실물 보기 전까지 미국 못 믿겠어**"라며 현물 인수 요구가 늘었습니다. 1970s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2020s 신흥국이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다만 1970s와 결정적 차이 — 미국 부채 GDP 비중이 35%에서 120%대(CBO 2036 전망)로 **미국이 훨씬 더 취약한 상태**.

1970s vs 2026 — 미국 취약성 비교

1970s

프랑스 의심

24배

부채 GDP ~35%

2026

BRICS+ 현물

+2.3배

부채 GDP ~101%

차이

취약성

****3배+****

CBO 2036 120% 전망

평행이지만 미국이 더 약해진 시대

바젤 3 + Tier 1 자산 승격 — 무한 종이금 발행 불가

두 번째 큰 변화 = **바젤 3** (국제결제은행의 은행 리스크 규제). 은행이 금·은 공매도 같은 위험 거래 시 **85% 현금 증거금 의무화** → 무한 종이금 발행 불가. 그리고 금이 Tier 3 → **Tier 1 자산으로 승격** (한꺼번에 두 단계, 현금과 동급).

미국 적용은 더 늦었지만 결국 발효했습니다 — Basel III Endgame 룰이 [2025년 7월 1일 발효](#)되며 미국 은행의 물리적 금이 Tier 1 자산 + HQLA(High-Quality Liquid Asset)로 공식 인정. 현금·미 국채와 동등한 최상위 유동성 자산 지위. (†2)

은행 입장에서 현금 대신 금을 현물로 쌓아두는 게 훨씬 안전해진 셈. 미국 초대형 은행은 큰 영향 없지만 **중소형 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 — 2020년대 금값 급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 WGC 설문 30%의 중앙은행이 2025년에도 금 비중을 더 늘릴 계획.

바젤 3 진행 — Tier 3 → Tier 1 + 미국 발효

1단계

공매도 증거금 85%

위험 거래 시 현금 의무화 —
무한 종이금 발행 불가



2단계

Tier 1 승격

금이 Tier 3 → Tier 1 (현금
동급, 한꺼번에 두 단계 점프)



3단계

미국 2025-07 발효

Basel III Endgame 적용 +
중소형 은행 금 보유 ↑

미국 남은 수단 4가지 — 모두 자기 밭에 총

대부분의 수단을 잃은 미국이 남긴 옵션은 4가지인데 모두 자기 밭에 총을 쏘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증거금 인상은 2020년 5회 인상으로 -80% 효과를 봤지만 이젠 현물 요구로 효과 ↓. **기준금리 인상**은 1980 폴 볼커식 (20% → 금 -75%)이지만 금 잡자고 미국 경제를 망치는 초가삼간 태우기. **불법화/90% 양도세**는 1933년식이지만 금이 중국·브릭스로 빠져나가 달러 담보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연준 보유 금 매각**은 단기 가격 하락 효과는 있지만 — **중국만 Thank you!** 싼값에 현물을 쓸어갑니다.

결론: 강의가 짚는 것은 **미국이 금값을 억지로 끌어내릴 힘은 예전과 달리 크게 약화됐다**는 시대 진단.

미국 남은 수단 4가지 + 한계 분석

옵션	단기 효과	한계 (자기 밭에 총)
증거금 인상	일시적 -80% (2020)	현물 요구로 효과 ↓
기준금리 인상	1980 폴 볼커 20%	초가삼간 태우기 — 경제 망침
불법화/90% 양도세	1933 강제 회수	금 해외 유출 → 달러 담보 사라짐
연준 금 매각	즉시 가격 하락	중국만 Thank you!

M2 대비 금값 +20% 선반영 — 단기 조정 가능성

다만 무조건 금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강사는 항상 금값을 전 세계 M2 통화량과 비교하는데, 현재 금값은 M2 증가 속도보다 **약 20% 빠르게 올라 있는 상태 — 선반영.**

선반영의 정체: 2026년 5월 파월 임기가 끝나고 다음 연준 의장이 임명될 예정. 그 사람이 트럼프에 충성하며 더 많은 돈을 찍을 것이 거의 확실 → 시장이 미리 선반영.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 추세는 미국이 금값을 막을 수단이 사라진 시대**라는 게 핵심 메시지.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 금값을 억지로 끌어내릴 미국의 힘은 예전과 달리 크게 약화됐고, 한국처럼 금 비중 3.7%(장부상 1.2%)인 G9 국가는 시대 흐름을 다시 들여다볼 영역이 있다는 시각.

Q1이 시대 흐름의 거대 그림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한 발 더 기초로 내려갑니다. 다음 카드에서 본강의 part2_01(채권과 금리)의 사전 기초 — **단기와 장기 금융시장이 왜 나뉘어 있고 정부 단기채 발행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봅니다.

Q2 — 단기 vs 장기 금융시장의 큰 벽

두 번째 질문은 일하는 상어님의 것 — "정부가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왜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이 마른다고 하나요?" 본강의 part2_01(채권과 금리)의 **사전 기초** 역할입니다.

두 시장은 큰 벽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단기 = 한 달 내 거래 + MMF·CD·CP + 기업 운전자금·월급.
 장기 = 공장 건설·연기금·모기지. **수익률·위험·유동성 모두 다릅니다.**

강사 비유로 "단기 = 자전거(가볍게 달림) / 장기 = 트럭(자동차 전용 도로)". 자전거가 고속도로를 못 달리듯이 단기·장기 자금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습니다 — 위험·규제·투자 목적의 큰 벽.

■ 단기 vs 장기 금융시장 — 자전거 vs 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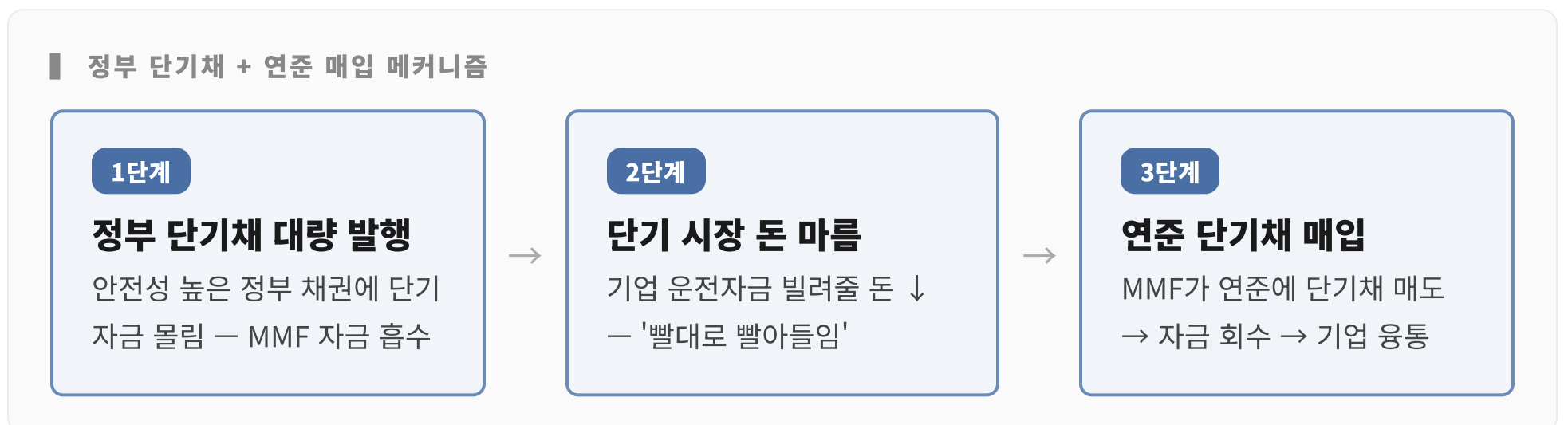
구분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거래 기간	한 달 내	장기
사용처	기업 운전자금·월급	공장·연기금·모기지
상품	MMF·CD·CP	장기 채권·주식·부동산
수익률	낮음 (안정)	높음 (위험)
유동성	매우 높음	낮음 (묶여도 OK)

정부 단기채 + 연준 매입 — 빨대 메커니즘

정부가 단기채만 집중적으로 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금리가 비슷한데 안전성은 정부 발행 채권이 압도적이라 단기 자금이 단기채로 몰립니다. 은행·MMF가 단기채에 자금을 다 투자 → **기업에 운전자금 빌려줄 돈이 사라집니다.**

강사 비유: "미국 정부가 단기 금융시장에 빨대를 꽂고 국채로 쪽쪽 빨아들임" → **돈이 씨가 마른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단기 국채를 왕창 사주면 MMF가 단기채를 연준에 팔고 자금을 회수, 다시 기업에 단기 운영자금 제공.

본강의 part1_03에서 짚은 트럼프의 마지막 수단(2025-12 유사 양적완화 = 단기채 매입)이 이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지 않으면 정부의 단기채 빨대가 단기 시장을 마르게 하지만, 연준이 받쳐주면 자금이 다시 풀립니다 — 통화승수 ↓·M2 ↑ 시대의 핵심 메커니즘.



강의가 짙은 모니터링 신호 3가지

박종훈의 경제로드맵 두 번째 Q&A를 정리하면 — 미국이 금값을 막던 90년 도구가 거의 모두 약화됐고, 가치 저장 수단이 미 국채에서 금으로 전환되는 시대 패러다임이 진행 중이라는 게 Q1의 결론입니다.

한국 외환보유고 금 비중 3.7%(장부 1.2%)는 G9 경제 규모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강의는 "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지만, '강한 매수 권유'나 'N% 비중 확대'를 권하진 않았습니다 — 시대 흐름을 들여다보라는 관찰 톤.

Q2의 단기·장기 금융시장 분리는 다음 본강의 part2_01(채권과 금리)의 신호등 룰북을 정확히 읽기 위한 기초입니다. 정부 단기채 발행 + 연준 매입의 빨대 메커니즘이 통화승수와 M2 흐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봐두면 본강의가 훨씬 잘 읽힙니다.

미국이 금값을 막을 90년 도구가 거의 모두 약화됐습니다. 1933 루즈벨트의 몰수도, 종이금 네이키드 공매도의 오즈 작전도, 1980 폴 볼커식 20% 금리 인상도 — 모두 자기 발에 총을 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미 국채에서 금으로 전환되는 시대 흐름은 강의의 핵심 메시지이며, 한국 금 비중 3.7%의 비정상성은 G9 경제 규모 대비 다시 들여다볼 영역입니다.

다음 본강의 part1_04 (1월 5주차)

패권전쟁과 돈의 미래

미국 vs 중국 GDP 격차 + 종이금 → 실물금 전환 + BRICS 17.4% 가속의 본격 분석

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1~+4)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